

<총장 칼럼>



“이름 없는 별들”

권호덕 총장

이것은 필자가 매우 오래 전 초등학교 시절에 본 영화 제목이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광주학생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그 당시 한국학생들은 거만한 일본 학생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11월 어느 날 기차 통학을 하던 한국 여학생이 일본 남학생에게 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한국남학생이 싸움을 시작함을 통해 광주학생사건이 터져 전국에 퍼진 것이다. 이 영화는 그 당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희생한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이런 ‘이름 없는 별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 역사 속에는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국군 전쟁 희생자 발굴단은 아직도 유골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육이오 희생자들이 12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그들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나라의 부름에 응했다. 그들에게는 손발을 잘 보호하는 장갑과 신발도, 추위에서 몸을 보호해 줄 군복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차가운 겨울에 살을 애를 듯한 추위에 떨어야 했고 무더운 여름 따가운 태양열을 견디며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도 않고 귀가길이 불투명한 전쟁터로 길을 떠난 것이다.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하는 지금 젊은 세대를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젊은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 자기의安危를 돌보지 않고 희생할 수 있었는지 하고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래서 해마다 6월은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달로 여겨지는 것이다.

군인이란 나라가 필요할 때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한다. 그 숭고한 정신과 자세 때문에 애국충정으로 전쟁에서 희생당한 군인들을 생각하면 숙연해 지는 법이다. 꽤 오래 전에 제 2 연평해전 당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 장면은 우리 해군이 교전 중에 적군을 향해 총을 쏘다가 자기 손가락이 적탄에 맞아 떨어지자 그것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른 손으로 총을 계속 쏘던 장면이다. 나는 이 군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다만 그가 나라를 위해 한 순간도 놓칠 수 없어서 자기 몸이 상한

줄도 모르고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 신문을 스크랩한 적 있다. 그가 하나의 유명한 영웅이 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다.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하고 동시에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도 이런 희생자들이 수없이 많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로마 시대의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그렇고 가까이 있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의 순교자들이 그러했다. 이들이 단순한 애국자와 다른 점은 이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11: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 이름 없는 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알아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버림받은 낙과(落果)처럼 희생되었지만 그날 주님께서 이름을 낱알이 부르시며 높이실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무명의 희생자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과 소망 때문인 것이다. 체면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기 이름을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참으로 현대 교인들이 뒷걸음친다는 감을 주는 듯하다. 이럴 때 우리는 진리를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나라와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달”



6.25 동안 때 구국일념의 학도병들



원한의 얼어붙은 길바닥의 1.4후퇴 행렬



이승만과 벤 프필드 장군



차가운 눈 길 속의 피난길



전투하는 유엔군



맥아더 장군과 참모들



휴전선: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학교소식>

1. 구약학 교수 선발. 4 사람의 구약학 전문가가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영복 교수가 선발되고 이사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2. 지난 5월 21일 은누리 교회 경찬홀에서 한국 3대 학회 가운데 하나인 한국개혁신학회가 제 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본교 교수들도 많이 참석했다. 국내외의 교수들이 250여명 모였다.



3. 6월 3일은 2016년 1학기 종강의 날이었는데 베트남 하노이 지역 신학생들 35 여명이 한국인 스랩진과 함께 본교를 방문하고 신대원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며 오후에는 권총장의 특강을 들었다. 이들은 베트남의 한인 선교사들이 양성한 학생들이었는데 특강을 들으면서 제기한 질문으로 보아 매우 진지하고 생각이 깊은 학생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 학교에 유학을 올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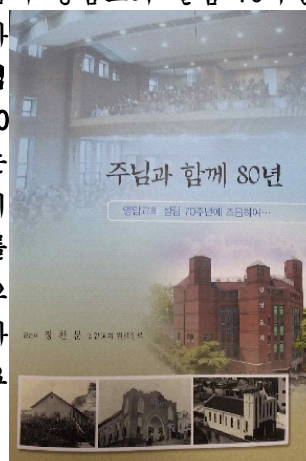
4. 2016년 6월 13일 호주 시드니 대학(SCD)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강철 이사장, 권호덕 총장, 이세진

부총장이 호주로 갔다가 17일(금요일)에 돌아온다. 이로써 우리 학생들이 여건이 주어진다면 호주에서도 공부하고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5. 영암교회 정찬문 원로장로님이 영암교회 설립 70주년



에 즈음하여 “주님과 함께 80년”이라는 그의 마지막 저서를 남겼다. 그는 여기서 교단의 역사와 자신의 신앙역사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했다.



6월에서 7월 5일까지 본교에서는 신편입생 모집 있습니다. 맨 뒷면 참조바람.

<교계소식>

“동성결혼 합법화 각하됐지만... 소송은 끝이 아닌 시작”

‘동성혼 각하의 의미와 전망’ 좌담회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왼쪽 세 번째)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 긴급좌담회에서 “부도덕한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교회의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프레임 전쟁’ 속 한국교회가 정교한 대응전략을 갖고 동성애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세계적으로 동성혼 합법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정면으로 요구한 최초의 소송인데, 대한민국 1심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변호사는 “1심 법원은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은 남녀 간의 혼인만 인정하며, 동성혼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또 인간의 자유에는 법률적·도덕적·풍속적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도덕한 동성애 확산 방지와 동성애 반대 활동 자유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의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은 1971년 시작됐으며, 45년 간 지속적인 투쟁을 거쳐 합법화됐다”면서 “동성혼 소송은 결혼의 개념을 재정의하며 사회질서의 근간, 뿌리를 갈아엎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소송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법적 교육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해답은 하박국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편만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선미 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표현도 불법이 된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저지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나선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조직을 통한 조직적인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과 정부 압박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동성애자들이 약자, 피해자 이미지를 앞세워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전쟁에서도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논쟁이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시민사회, 언론,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구약주석>

이사야서 강해(8)

“심판 선고와 구원 약속 II”



(사 11:1~12:6)

임용섭 교수(구약학, Ph.D.)

개요

이사야서 9:8~10:4은 백성의 죄를 질책하

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고했다. 그 다음에 10:5~34에서 하나님은 앗수르를 치실 것을 선언하신다. 이 앗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의 도구였다. 하지만 앗수르가 분수에 넘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까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 이후에 앗수르를 처단하신다. 이와 같은 앗수르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 그것은 곧 압제자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앗수르의 압제가 사라진 후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11~12장은 의로운 왕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통치 아래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한다.

1. 심판의 선고(9:8~10:4)

4연으로 구성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한다.

2. 앗수르에 대한 심판(10:5~34)

메시아 왕국(사 11:1~16)

1) 메시아 성품과 통치(11:1~5)

2) 평화의 왕국(11:6~10)

3) 언약 백성의 귀환(11:11~16)

심판의 도구였던 앗수르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3. 메시아 왕국(11:1~16)

4연으로 구성된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다.

1) 메시아의 성품과 통치(11:1~5). 여기에서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1~3절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품을 설명하고, 4~5절은 그의 통치의 특징을 묘사한다.

새 통치자는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온다. 선지자는 왜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 아버지인 이새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가? 그것은 이새에게서 난 다윗과 같은 존재 즉 새로운 다윗 같은 왕의 출현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실한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대적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셨고, 또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약속하셨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이상을 이루는 새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새 다윗 같은

왕은 여호와와 영을 받아 그 영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린다. 앞에서 앗수르 왕이 스스로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것(10:13)과 대조로 메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은 그의 통치 아래 보호를 받지만, 악한 압제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2) 평화의 왕국(11:6~10). 6~9절은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범우주적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한다. 맹수와 가축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듯,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더 이상 강대국이나 강한 자들이 약소국이나 가난한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것은 2:2~4에서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모여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함으로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9절은 다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시온 산에서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것을 묘사한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메시아의 통치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위에 미치게 될 것을 선언한다.

3) 언약 백성의 귀환(11:11~16).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메시아의 이상적인 통치는 언약 백성의 구원을 간과하지 않는다. 11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한다. 앞에서 하나님의 손은 진노의 심판을 위해 펴져 있었으나(9:8~10:4) 이제는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손을 펴신다(11:11). 메시아를 기치로 세우시며 열방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열방 가운데 또 기치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12절). 그때에는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목이 사라지고 한 공동체로 연합하게 되며(13절) 주변의 대적들을 제압하게 될 것이다(14절). 그것은 제 2의 출애굽과 같다. 즉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권능으로 유브라데 강을 가르고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15~16절).

4. 시온의 감사 찬송(12:1~6)

구원에 대한 선언 이후에 12장은 구원받은 백성이 부를 감사 찬송을 제시함으로 구원이 확실함을 증거한다. 1절은 감사의 동기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찬양의 의지를 표현한다. 이 백성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

판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안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2~3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기쁨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은 4~5절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단지 성도 내면의 즐거움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선포로 이어진다(4~5절). 마지막으로 6절은 다시 그 초점을 시온에게로 맞추며, 그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신앙시인의 수필>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경아 박사

문창초등학교 앞에는 썩뜸을 하는 집이 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늘 한약냄새가 난다. 어느 날, 그곳을 지날 때였다. 앙증맞은 고양이 한 마리가 뱅글뱅글 돌며 놀고 있었다. 취미가 관찰인 나는 저만치 보이는 그 광경을 보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고양이의 행동양상을 관찰할 셈이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가서 보니, 고양이는 혼자 노는 게 아니었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함께였다. 그 남자는 투박하면서도 제법 긴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고양이가 행동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그 고양이와 눈을 맞추며 웃곤 했다.

남자는 고양이가 도는 쪽, 그러니까 고양이가 딛고 있는 아스팔트 위 어딘가를 가끔 툭툭, 치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지?’ 하며,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서 있던 고양이는, ‘이제 어떡하지?’ 하며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 고양이는, 그 남자가 툭툭 친 그곳을 따라 돌았다. 그러다보니 나에게는, 그 고양이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이 보인게다.

남자는 자신이 들고 있는 막대기 같았다. 마르고 길고 투박했다. 말도 없었다. 마치 잊고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아, 오던 길을 얼마쯤 되돌아간 내가 문구점에서 연필 한 자루, 펜 한 자루, 사가지고 다시 나와 그곳을 향해 갔을 때에도, 그 남자는 그랬다.

말이 없었다. 그저 그 앞을 서성거리는 나를, 저만치 갔다가 다시 와서는 또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는 나를, 흘깃,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가끔 고양이 앞을 툭툭, 치면서.

바로 그때였다. 고양이가 나를 발견했다. 뱅글뱅글, 눈앞만 보며 막대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돌던 고양이가 드디어, 자신의 움직임에 낯이 나간 것처럼 그 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나를 쳐다본 것이었다. 바로 그때, 내 속에서 울컥, 솟아나는 것이 있었다. 솟아나 사방으로 솟구치는 그것, 그것은 나의 걸음을 재촉했다. 길에서 하는 기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둘러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한 강의실 의자에 앉아서, 마음으로는 땅에 엎드려서, 가슴으로 울었다. 마냥 울었다. 가슴속에서 흐르던 눈물이 소리 질렀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고양이로소이다. 툭툭 고양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춰 선 채 아버지의 지팡이 소리를 기다리는 혹은 듣는, 저는 고양이로소이다.’

그곳은 벌써 6년이 넘는 세월을 머금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때의 툭툭 고양이로 존재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생애... 그 어디쯤에서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늘을 우러를 때마다, 아버지는 한결같이 내 옆 어딘가를 가리키신다. 툭툭.

그 막대기인지 지팡이인지는 늘 만남이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마주하는 만남들,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 그리고 나는 고양이이다. 하나님의 툭툭 고양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툭툭 고양이. 하나님만 바라는 툭툭 고양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툭툭 고양이.

<구약주석>

에스겔서 주해(3)

박영복

교수(구약학, Ph.D.)



에스겔 2:1-10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 밖에 없다. 뜻밖의 하나님의 방문은 에스겔로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 이었다. 이사야서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사 6장)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바벨론 포로지의 그발 강가가 아닌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에스겔은 얼떨결에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았다(1장). 아마도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 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순간이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인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이 자신의 명령을 듣고 수행하기를 원하셨다.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 위해 ‘네 발로 일어서라’라는 말씀에도 어쩔 줄 모르는 에스겔을 성령이 일으켜 세우신다(2절). 그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

씀은 에스겔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도 그렇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도 그렇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자마자 먼저 사명부터 말씀하시는 것일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지친 모세를 다독이는 말씀을 먼저 하실 수도 있었고, 패역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사 1:2-4)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사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건네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시자마자 이들에게도 대뜸 사명을 읊어주셨다(출 3장; 사 6장).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지쳐서 이제 포로생활에 적응할 법도 한 시기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직도 얼떨떨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필자가 묵상하기엔, 사명자에게는 사명이 곧 하나님의 위로이고 격려인 것이다. 사명자는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인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커다란 위로와 경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시자마자 뜬돌이지 않고 사명을 전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인자야’(벤 아담)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신다. 직역하면 ‘사람의 자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관점에서 ‘인자’는 유한한 존재(finite being)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mortal being)를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mediator)의 의미가 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을 전하시면서 이 호칭은 세 번(3절, 6절, 8절) 언급되고 있다. 즉, 언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나의 백성’이라면, 이런 호칭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충격적이다.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2장에서만 ‘배반하다, 패역한, 패역하다’ 류의 단어들이 일곱 번 나오는 것을 주목하고,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¹⁾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두 가지 설명을 덧붙이신다. 먼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로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신다.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들

1) 크리스토퍼 라이트, 『에스겔 강해』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4), p 67.

에게 보내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것이다.

“5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조차 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에스겔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의하면,²⁾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의 성취나 증험이 있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을 보내시어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다. 나중에 선포의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몰락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실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조직신학>

하나님은 누구신가? (15)

삼위일체론 강의(8)



이동영 교수(Dr. theol.)

교리교육의 중요성(계속)

지난 강의인 제 15강에서 우리는 교리교육의 중요성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아울러 성부 하나님 이 누구신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신학적 쟁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자는 누구인가?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아버지의 유일하고 영원한 독생자이십니다. 성부, 즉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라면 아들도 영원한 아들입니다. 아들은 ‘무로부터 창조’(creatio ex nihilo)된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은 출생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신성을 소유하시고 향유하십니다. 그러기에 제 2위격의 하나님은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신성과 존재를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성의 원천’(fons deitatis)을 아버지로부터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의 원천’은 성부에게만 귀속되는 속성, 즉 성부만이 소유하시며 성자와 성령과는 함께 공유하지 않으시는 성부의 비공유적 속성이기 때문

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신 18:22)

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신성의 원천을 받으셔서 아들도 신성의 원천이 되신다는 식으로 사유하게 되면, 삼위일체 안에 두 개의 신성의 원천을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 대항하여 성령의 발출의 문제를 놓고 한사코 서방의 필리오크베(Filioque) 주장을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니케아 공의회(325)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의 가르침에 따르면 삼위 중 신성의 유일한 원천은 성부이십니다. 오직 성부만이 신성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원천이신 성부로부터 성자는 영원히 ‘출생’(generatio)하셔서 출생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며, 출생의 방식 안에서 성부와 신성을 공유하시고, 성령은 영원히 ‘발출’(processio)하셔서 발출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며, 발출의 방식 안에서 성부와 신성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homoousios)를 소유하고 계심으로 한(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성부로부터 ‘발출’하실 뿐만 아니라 성자로부터도(a patre filioque) ‘발출’하신다면 삼위일체 내부에 암암리에 두 개의 신성의 원천을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서방교회의 필리오크베(filioque) 주장에 대항한 동방교회의 비판이었던 것이지요. 성령의 발출의 문제, 즉 필리오크베를 둘러싼 동방과 서방의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 논쟁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신학적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는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방교회가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의 원문에 ‘필리오크베’(아들로부터도)라는 문구를 훗날 첨가(삽입)하게 된 것은 동방교회가 오해하듯 삼위 내부에 두 개의 신성의 원천을 설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만 이곳에서 지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신적인 능력(ενεργια)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 주체(hypostasis)라는 것은 동방과 서방의 공동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인격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즉 성령의 인격적 정체성을 어떤 구체적인 인격적 호칭으로 명명할 수 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겸손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구원의 역사’(historia salutis) 속에서 언제나 자신의 권능으로 성부와 성자 만를 드러내시고, 정작 당신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은 단 한 번도 명시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격의 하나님과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은 각각 인격적 호칭인 성부와 성자로 명명되시지만, 세 번째 위격의 하나님은 단순히 ‘성령’(Spiritus sanctus), 즉 ‘거룩한 숨결’(heiliges Hauchen)이라고만 명명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성령론에 대한 기념비적인 저술

을 남긴 프랑스의 신학자 이브 콩가르(Yve J. Congar)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수줍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 하면서 “삼위 안에 있는 미지의 인격”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기독교 미술사에서 삼위일체를 그린 성화들을 살펴보면 성부와 성자는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반면, 성령님이 인격적 존재로 묘사되지 않고, 동물의 형상, 즉 비둘기의 형상으로 묘사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방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서 『삼위일체론』(De Trinitate)에서 성령을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묶는 ‘사랑’(amor, caritas) 내지는 ‘사랑의 띠’(vinculum amoris)라고 불렀습니다. 성부로부터 나오셔서(발출하셔서) 성자 위에 머무르는 ‘비둘기’의 이미지나 ‘사랑의 띠’로서의 성령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격적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반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령의 인격적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보고자 하는 신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쉽사리 그 돌파구가 찾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성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출생과는 다른 방식, 즉 발출의 방식으로 성령을 영원히 내쉬십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내쉬어진 분, 즉 발출하신 분이시지, 성자처럼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내쉬어진 분, 즉 발출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는 아버지의 거룩한 숨결, 즉 성령(Spiritus Sanctus)이라고 명명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삼위일체에 있어서 신성의 유일한 원천이기에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로부터 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령이 아들로부터도 발출한다면, 아들은 제 2의 아버지로 오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발출하시지, 아들로 부터도 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동방교회의 주장입니다. 성령의 기원, 소위 필리오크베 논쟁으로 점화된 성령의 발출에 관한 동. 서방교회의 이해방식의 차이는 양 교회를 비극적 분열(1054)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양 교회 간에 대화의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서방의 필리오케 교리가 성자 또한 성부와 같은 신성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의도된 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성령의 발출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성령은 아버지와 같이 신성의 원천이 아니다.
- 2) 성령은 아들과 같이 출생하지 않았다.
- 3)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발출한다.
- 4) 아버지로부터의 성령의 발출은 아버지와 성령 사이의

독특한 관계로서, 성령을 규정하는 속성이다.

바빙크(Herman Bavinck)와 몰트만(Juergen Moltmann)이 어디에선가 지적했던 것처럼, 아들을 ‘말씀’ 즉 ‘로고스’(logos)으로 규정할 때 성령이 가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독특한 내적 관계가 잘 규정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영원한 말씀을 그의 성령을 영원히 내쉬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과 성령이 발출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이 결합되어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logos)과 ‘성령’(spiritus)은 함께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동등하시고, 양자 간에 서열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호흡)은 상호간에 서로를 제한하고, 상호간에 서로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말씀(아들)은 성령과 더불어 말 되어지고,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내쉬어지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또한 아들처럼 신성과 본질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시는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독교 교계 원로의 시론>

동성애는 反사회적이다

이종윤 목사

미래한국 상임고문 webmaster@futurekorea.co.kr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동성애는 탈·비·반(脫·非·反)성경적이며 반(反)사회적이다. 왜 그런가. 동성애자들은 타고난 본성에서부터 온 것이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법에 대항하는 탈(脫)성경적 행위자다.



이종윤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서울교회 원로목사
미래한국 상임고문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나 성경은 그 대상이 동성일 경우 저주한 바가 없다 한다. 간음, 간통, 동성결혼은 순리를 따르지 않는 역리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죄다. 오늘날 에이즈(AIDS)와 같은 징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나 脫(탈)성경적 인간은 스스로 멸종을 재촉할 것이다.

빈스(Vines)와 켄(Ken)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색, 매춘, 강간 같은 사랑 없이 상대방을 남용하는 것을 금한 것이라는 非(비)성경적 입장을 주장한다. 바울은 선천적 동성애자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역사학자들은 고대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찾지 못했다 한다.

그러나 플라톤의 심포지움에서 제우스가 인간을 반(半)

으로 쪼갬을 때 이성과 동성 두 인간으로 만들면서 각자들은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아 재결합했다 한다. 이성 은 그 반대성을 찾았고, 동성들은 같은 성을 찾았다. 이 신화는 고대사회에서 이미 동성애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일 듯 하지 말며’(롬1:27) ‘서로 향하여는’ 강간 매춘 남색하는 자를 말한 것이다.

19세기 미국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교회는 성경에 노예제도를 허용했다고 가르친 오류를 범한 것처럼 오늘날 동성애를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사회적 통념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은 비(非)성경적이다. 그들은 스스로 ‘성 소수자’로 부르면서 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위기(18:22)에서 동성애를 말씀하면서 ‘이는 가증한 일 이니라’하셨으나 그들은 레11:9-12에서 지느러미의 비늘 없는 조개류, 갑각류의 물고기를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고 혐오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대조시키면서, 현대 기독교인 중에 조개류나 갑각류의 물고기를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듯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야 된다는 반(反)성경적 입장을 취했다.



신약의 사도들은 모세의 희생제도와 예전적 성결법을 이방신자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고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를 확증한 바 있다. 우상제물·음행·목매어 죽은 것·피를 먹지 말라는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고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별한 것을 동성애자들은 알지 못하므로 반(反)성경적 해석을 한 것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워 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반(反)사회적이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남자와 여자,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반(反)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性的) 지향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군대 내 동성애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진보정당의 균형법 개정안이 발의되

고,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가르치게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과 함께 제정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은 더욱 힘을 써야 한다. **미래한국**

<신약주석>

“반드시...해야 한다” 동사로 읽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장석조 교수
(신약학, 성경적설교연구소 소장)

최근 한국복음주의신학회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꼽았다. 어디 국가적 차원뿐일까!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개인이나 모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런 정보는 인터넷검색창에 “반드시 해야 한다”를 입력하면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동사(데이, dei)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 비중은 이 동사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154회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누가가 사용하는 비율이 26%를 차지한다. 특히 누가복음(12%)과 사도행전(14%)에서 이 동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동사의 용례를 종합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계시하고 실행하신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된 몇 구절을 상고하려 한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눅 2:49로서 누가복음 1-2장의 핵심구절이다. 2:49의 “있어야”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증언하시고 그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할 절대적 필연성을 강조해준다. “2: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둘째 언급인 4:43의 “복음을 전하여야”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해야 하는 사역의 본질에 관한 가르침을 강화시킨다(4:43). “4: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셋째 언급인 9:22의 “해야 한다”는 단지 부활을 가리키는 “살아나야”에만 해당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린 바 되어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 후에 살아나야 함 등 4개의 동사에 관련되어 있다. “9:22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까지 언급한 누가복음의 첫 세 가지 용례는 모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데 더 중요성이 있다. 그 외에 9번 더

언급된 “...해야 한다” 동사들도 거의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사용된다. 이 용례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자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성취되어야 사역을 부각시킨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중요하게 사용된 이 동사를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어간다. 사도행전에서 이 동사의 첫 언급인 행 1:16은 한국어번역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동사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마땅하도다”라고 번역하지만, 내용인즉 구약 성경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을 가리킨다. “1:16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둘째 언급인 1:21-22은 복음의 핵심인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의 자격과 관련된다. “1: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의 주제는 눅 9:22을 상기시킨다.

셋째 언급인 행 3:20, 21도 한국어번역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동사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마땅히”라고 번역하지만,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과 관련된다. “3: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3: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특히 넷째 언급인 행 4:12도 한국어번역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동사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을 만한”이라고 번역하지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절대필수적 근거와 조건이 오직 예수님과 그에 대한 믿음임을 가르치는데 사용된다.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다. 그 뜻을 안다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속 계획의 설계자이고 예수님은 그 구속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을 이 신적인 절대 필연의 동사로 표현하셨고, 승천 후 남은 사도들도 그 동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웠다. 이와 같이 성경의 중요한 동사를 중심으로 성경읽기를 제안한다.

(ps. 이런 성경읽기는 원어의 용례들과 분포도를 보여주는 컴퓨터프로그램 Bworks로 가능하다. 이에 관한 문의나 강의 요청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부속 [성경과신학연구소 kssj324@gmail.com](mailto:kssj324@gmail.com)이나 간사 02 845 7711)

<신약주석>



골로새서 해석(7)

골로새서 2:16-23절

최흥식 교수
(Ph.D., 신약학)

본문개관

개요

본문은 이단적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바울의 경고와 구체적 권고를 담고 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인 16-19절은 음식법, 절기법, 그리고 천사숭배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경계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바울의 강권이다. 둘째 단락인 20-23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세상의 근본적 원리 또는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세력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교의 규례들을 순종할 필요가 없음에 대한 바울의 경고와 설명이다.

16-19절: 바울은 앞에서 제시한 신학적 설명(2:8-15)에 근거하여 누가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고한다.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음식과 성일과 절기에 관한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인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바울은 강권한다. 거짓 교사들은 금욕적 삶과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는 것을 즐기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열등성을 폄하하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열등하고 부적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며 통치하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은 영적 성장의 공급원인 그리스도를 붙들 것을 권면한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어떤 종교적 규례를 따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머리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 누구든지 폄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23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세상의 영적 세력들 또는 근본적 원리들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세례를 통한 장사는 이전에 살았던 세상에 대한 죽음이며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런데 음식법, 날과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금욕적 삶에 대한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다시 영적 세력들에게 굴복하는 것이요 다시 유대교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유대교의 정결과 음식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별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일시적인 소용은 있었지만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정결법과 음식법에 관한 규례 준수는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자의적으로 동참하는데나 금욕적 삶을 추구하는데 소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거나 해결하는데 아무런 가치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은 신자는 유대적 삶의 규례를 준수 할 필요가 없다.

절별주해

16절: 바울은 이전 본문(2:8-15)의 신학적 설명에 근거하여(“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며 이단적 규례들을 따르지 말 것을 권고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역사의 결과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한다.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음식과 성일과 절기에 관한 율법 준수를 가르쳤다. “먹고 마시는 것”은 레위기 11:1-23과 신명기 14:3-21에 나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와 민수기 6:3과 레위기 10:9에 나오는 주류를 금하는 규례를 가리킨다.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단 1:3-6; 행 10:14 참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와 거룩한 날들에 대한 율법을 가리킨다.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들, 특히 유월절, 맥추절과 장막절을 지칭한다(출 23:14-16). “월삭”은 매월 초하루로서 번제를 드리는 날(민 10:10; 28:11)이다. “안식일”은 칠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기리는 날이다(출 20:8).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표식이며 이 표식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규례들을 준수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권면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분을 통해 충만해지고 구원을 얻은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규례들이 필요 없음을 알아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꺾으려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17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비판에 대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한 모세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잘라 말한다. 이러한 바울의 사상은 하늘의 원형과 땅의 모형을 구분하는 플라톤 철학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플라톤 사상은 유대인 철학자 필로폰만 아니라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둘 다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주장한다(히 10:1 참조). 바울에게 있어서 장차 올 것은 유대인들이 학수고대 했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다(롬 5:14 참조). “몸”은 실체를 의미하는데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실체로서 하늘의 실재를 담고 계시며 나타내신 분이시다. 따라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열등하며 참 실재가 아니므로 율법준수는 구원을 위해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참 실재인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18절: 바울은 “겸손과 천사 숭배”를 즐기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열등성을 폄하하며 비판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부적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다. “꾸며낸”으로 번역된 말은 원문에 의하면 “무엇을 즐기는”을 뜻한다. 거짓 교사들이 기뻐 행했던 것은 “겸손과 천사 숭배”이다. “겸손”은 자기부정(레 16:29; 23:27 참조) 또는 금욕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금식(시 35:13; 사 58:3 참조)을 의미한다. 거짓 교사들은 금식과 금욕적 생활을 통한 자기부정을 강조했을 것이다(골 2:21 참조). “천사 숭배”는 천사를 숭배하는 인간의 경배 또는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가 전통적 해석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즐기는 유대적 혼합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해석에 의하면 천사 숭배는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주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그들이 동참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상은 구약성경(시 29:1-2; 148:1-2)과 여러 유대문서에서 발견된다. 후자의 해석이 옳다면 거짓 교사들은 천사가 주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참여하여 신적 경지에 올라가 환상을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의지하여”는 원문에 의하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천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 경험한 환상을 본 것을 거짓 교사는 자랑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본 환상을 악한 인간의 마음에 의하여 헛되이 과장한다고 폄하한다.



19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며 통치하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머리”는 근원 또는 권위를 뜻하는데 본절에서 몸을 통제하고 유지하며 성장 시키는 근원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은 그분이 몸인 교회의 성장의 근원이 되시어 교회를 유지하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엡 4:16 참조).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성장 동력을 공급받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지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 바울은 거짓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므로 그분과 떨어져 있음을 지적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 성장의 주체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성장시키신다. 그러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20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세상의 영적 세력들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왜 그들이 세상 안에 사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규례를 순종하느냐고 꾸중하는 질문을 한다.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 죽음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써 세상과 단절됨을 의미한다(갈 6:14 참조).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적 세력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가 없게 만드셨고 성도들을 그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런데 음식법, 날과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금욕적 삶에 대한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다시 영적 세력들에게 굴복하는 것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자들의 존재의 영역은 그리스도이지 영적세력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다.

21절: 거짓 교사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쳤다. 이 규례들은 정결과 음식에 관한 것이다. “붙잡지 말라”와 “만지지 말라”는 접촉이 금지되고 불결한 어떤 것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유대교 정결법과 관련이 있다(레위기 5:2-3; 11:24-28).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시체(민 19:11-13) 또는 문둥병자(레위기 13:45-46)와 같은 불결한 물건이나 사람을 접촉한 사람은 불결한 자가 된다. “맛보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유대교의 음식법과 관련이 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의 표지로서 정결법과 음식법을 지켰다.

22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정결법과 음식법에 관한 규례를 준수하는 것은 별 의미와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꾸중한다. 여기서 바울은 아마도 마가복음 7:7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하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권면했을 것이다. 음식법 준수는 일시적인 소용은 있었지만 이제 용도폐기된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이단적인 점이 암시되어 있다.

23절: 바울은 정결법과 음식법에 관한 규례 준수는 자의적 숭배나 금욕적 삶의 영위와 지혜를 추구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의적 숭배”는 자의적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것 또는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자의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겸손”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겸손”은 자기부정 또는 금욕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금식을 지칭한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욕적 삶을 위해 몸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의 충족”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정욕적인 만족을 의미한다. 유대적 규례를 준수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거나 해결하는데 아무런 가치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선교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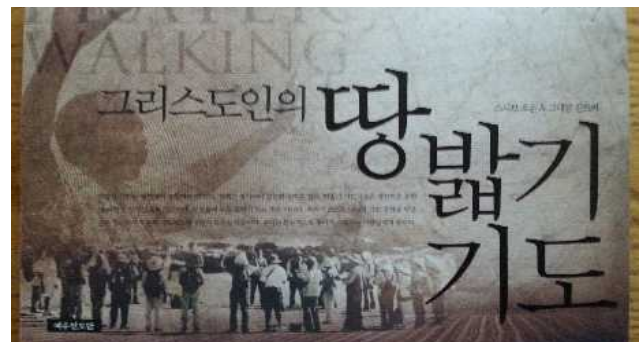


IV.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SLSW)의 신학적 쟁점에 관한 평가

배춘섭 교수
(선교학, Ph.D.)

3. 땅 밟기와 귀신축사

찰스 크래프트는 “오늘날 성도의 교회가 강력한 귀신 쫓기 운동을 펼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회복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³⁾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데이빗 폴리슨은 “그리스도인은 회개, 믿음, 순종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 전통적인 목회/신학자들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악령을 쫓아낼 목적으로 전도, 성화, 보호를 구한 것이 아니다”⁴⁾고 반박했다.



3) Ibid., 99.

4) David Powlison, *Power Encounters*, 유미영역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42.

문제는 지나친 은사주의의 잘못된 활용이다. 무절제한 은사주의의 활용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신앙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김성태는 교인을 말씀으로 목양하고 전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인격적 교회성장과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세계에만 매달려 귀신추방만을 시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위험스런 일이고 광신적 신앙의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⁵⁾고 말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귀신추방만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총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전인격적인 사역과 헌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SLSW은 땅 밟기와 귀신축사를 위해 주로 중보기도, 대적기도, 동일시 회개기도와 같은 자기주권적 기도에 더 열중하는 인상을 갖게 한다. 정이철은 신사도 운동가들이 SLSW의 개념으로 중보기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신사도 운동가들이 중보기도를 통해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과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⁶⁾ 이런 이유로 예언, 환상, 새로운 계시 등은 신사도 운동의 영적 전쟁의 핵심사상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정이철은 디모데전서 2:1절의 “...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는 구절에서 ‘도고’(ἐντεούξεις)로 기록된 용어가 ‘청원, 탄원, 기원’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중개자로서의 중보기도 개념은 없다고 주장한다.⁷⁾ 또한 김세윤은 영적 전쟁에 관해 논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대결방식의 선교방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하나님의 복음전파 방식으로 선교할 것을 재차 권유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신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신약의 모든 책들이 다 이런 ‘영적 전쟁’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쟁 언어를 가장 절실하게 사용하며 영적 전쟁을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다. 그 책은 교회를 유다의 사자 다윗적 메시아가 소집한 12사단 14만 4000의 군대라 한다. 그리하여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는 사단의 삼위일체에 맞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 책은 사단의 나라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 전쟁에 어떻게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일곱 교회들에 보내진 하나의 순회서신이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신전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보냈고, 사단의 왕좌가 있는 버가모 교회에도 보냈다. 하지만 그 책 어디에도 그 신전들 주위를

‘땅 밟기’를 하고 ‘축사’하는 식으로 영적 전쟁하여 승리하라는 말은 없다. 도리어 요한계시록은 “희생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즉 순교를 무릅쓴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다.⁸⁾

이상 판단해 보건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도의 방식이 진정한 영적 전쟁임을 알 수 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개념을 사단의 나라에 능력으로 대항하여 땅 밟기나 귀신축출 등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러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능력대결은 복음이 증거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필요에 의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따라서 영적 전쟁터는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간 삶의 터전임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 그런 순종의 삶이야말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두 계명”(막12:28-34)과 “지상대명령”(마28:18-20)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세상 보기>

포퓰리즘 신화(神話)의 비참한 최후



[글로벌 뉴스] 브라질 좌파정권의 예견된 몰락

김충남 대통령학 전문가

webmaster@futurekorea.co.kr

원자재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연금과 실업지원제도 운영으로 재정위기 직면. 엄청난 재정적자 국영은행 차입금으로 메우고도 정부회계에 기록하지 않아

‘브라질의 대처’로 알려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5월 12일 탄핵 심판을 받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탄핵 심판 후 최종 결정권을 가진 브라질 상원은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의 탄핵 위기 탈출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말 정부회계 부정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호세프의 탄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룰라 전 대

5)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150.

6) 정이철,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3), 248.

7) Ibid., 416.

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lthh&logNo=120117966855> 2015년 2월 20일.

통령을 비롯한 집권층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 와중에 세계경제 위기로 석유·철광석·구리 등 브라질의 주력 수출품목인 천연자원의 국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 해 마이너스 3.8%라는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방만한 복지정책을 고수하는 등 정권의 난맥상과 무능이 드러나면서 호세프에 대한 지지도는 9%까지 추락했다.

호세프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결정적 이유는 정부회계 조작이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연방법원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흑자로 조작하는 등 정부회계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룰라 집권 이래 13년 간 노동자당(Worker's Party) 정권이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펴왔고, 최근 최악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복지정책을 고수하면서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국영은행 차입금으로 메우고도 정부회계에 기록하지 않았다.

재정적자의 주원인은 연금과 실업자 보호제도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족에게 매달 4만 7000원의 현금을 주는 제도다. 룰라 정부는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5000만 명에 달하는 빈민층 가구에 매달 4만 7000원의 현금을 지급해왔고, 이밖에 전 국민 무상의료와 대학등록금 면제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룰라는 노동자층에 의해 구세주처럼 떠받들어졌고, 한때 그의 지지도는 87%에 달했다. 퇴임 당시에도 룰라의 지지도는 80%를 상회했다.

브라질의 연금제도는 인기영합정책의 결정판이다. 55세 정년퇴직 후 받는 연금이 일할 때 받던 봉급보다 훨씬 많다. 브라질 경제학자들은 브라질의 연금제도가 재정 파탄을 초래한 그리스 연금보다 더 방만하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40~5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2000년대에는 수출용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브

라질 경제가 호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 같은 복지 지출이 지탱될 수 있었다. 당시 메릴린치는 브라질을 브릭스(BRICS) 국가의 하나로 꼽을 정도로 주목받는 나라였다. 그러나 룰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 성장을 위한 투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오늘의 파탄에 이른 것이다.

‘깨끗한 정치’ 구호로 가려진 비리 복마전

호세프는 2001년 노동자당에 입당한 지 2년만인 2003년에 출범한 룰라 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에 오르면서 그녀의 운명은 룰라의 부침과 함께 하게 되었다.

룰라는 초등학교만 나온 가난한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노동자와 빈민층에 영웅적 존재였다. 노동자당은 야당 시절부터 부패 추방과 빈곤 추방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깨끗한 정치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런 이미지에 힘입어 집권했고, 집권 후에도 깨끗한 정치를 강조해왔다.

때문에 2007년 멘살랑((Mensalao)으로 불리는 조직적인 야당 의원 입법매수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들은 배신감에 크게 분노했다. 이 사건은 여소야대(與小野大)에 처한 룰라 정권이 필요한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 찬성을 조건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온 사건이다. 2012년 브라질 연방법원은 멘살랑 사건은 “노동자당의 계속 집권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룰라의 수석장관(비서실장 및 국무총리 역할), 집권당 대표 등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기소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룰라는 참신한 인물로 알려진 호세프를 수석장관에 임명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룰라는 퇴임 후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기 위해 호세프를 후계자로 삼았다. 그 결과 호세프는 2011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5년에 재선되었다.

룰라는 한 때 황무지를 일궈 미래로 가는 도로를 닦은 영웅으로 칭송되었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서 진보적 지도자의 롤 모델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퇴임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비리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 수출용 원자재 가격의 일시적 상승에 따른 경기 호황의 거품이 꺼지면서 그의 재임 중 업적과 명성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결국 투옥되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권력형 비리사건의 회오리 속에 취임한 호세프는 ‘깨끗한 청소’를 표방하고 비리에 연루된 장관 6명을 해임하는 등 단호한 자세로 임했으나 추락된 노동자당 정권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사건이 터졌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2004~2012년 기간 중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에서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대부분이 집권층으로 흘러들어갔고, 2014년 대통령 선거에도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제2의 브라질’이 될 가능성은?

호세프는 2003~2010년 기간 중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이 회사 이사회 의장을 겸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이 회사는 룰라 정부로부터 석유의 채굴, 정제, 수출 독점권이라는 특혜를 부여받았으며, 국제 유가(油價)가 고공행진했을 때는 연매출이 1000억 달러에 달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룰라가 곤경에 처하자 호세프는 룰라를 보호하기 위해 수석장관에 임명하려다가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다. 높은 원자재 수출가격에 따른 경제 호황이 일자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폭락으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시행한 복지혜택은 표심, 민심이 두려워 거둬들이지 못했다.

당연하게도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은 투기 등급으로 전락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좌파 정권이 이끌었던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브라질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했거나 추락 중에 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이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10년 간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의 축소는커녕 여야 간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실정이다.

한 경제학자는 “마약 갱단과 게릴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과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복지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파탄에 빠뜨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은 결코 그 뒤를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한국**

<책소개>

우리는 선배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25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목사가 13명이고, 장로도 여러 명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교회의 사명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분들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었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길선주 한국 기독교의 아버지
 김교신 평생 정직을 강조한 교육자
 김규식 탁월한 외교력을 겸비한 독립운동가
 김병조 일제와 공산주의에 온 몸으로 맞선 투사
 김용기 젓과 꿀이 흐르는 이상촌 건설을 꿈꾸다
 김현승 「가을의 기도」를 지은 기독교 시인
 김 호 해외 독립운동의 자금책
 목일신 국민 동요 「자전거」의 작사자
 박관준 일제의 심장인 의사당에서 독립을 외치다
 박두진 천자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박목월 「엄마 닮았네」를 노래한 청록파 시인
 방기전 북간도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손양원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식으로 삼다
 손정도 온 가족을 애국운동으로 이끌다
 신석구 국민 계몽운동의 선도자
 유명모 한국적 언어로 성경을 풀어쓰다
 이필주 격동기에 민족과 신앙을 위해 힘쓴 목회자
 전영택 찬송시 「사철에 봄바람」의 작사
 주기철 민족적 자존심과 기독교 신앙을 수호한 순교자
 주요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노래한 애국시인
 최병헌 유교 지식인에서 기독교인이 되다
 최자실 가난 속에서 희망을 찾은 ‘할렐루야 아줌마’
 최흥종 나병 환자와 결인들의 친구
 한경직 ‘경천애인’의 청빈한 목자
 한경희 만주의 사도 바울

김덕균 지음/다른생각/271쪽/13,000원



2016년도 신·편입생 모집(일반전형)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철저한
성경언어교육에 기초한 주석-설교 훈련”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른
신학교육의 산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특징:
- ① 성경언어 강화를 통한 성경 주석 특성화
 - ② 직장인을 위한 수업 운영
 - ③ 지방학생 기숙사 제공
 - ④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7분 거리
 - ⑤ 다양한 장학 제도(성적, 복지, 단독목회, 원우가족, 근로, 특별 등)
 - ⑥ 타 교단 학생으로 본 교단에서 목회를 원할 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도록 함
3.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b.ac.kr

1. 모집 내용(신입, 편입) - “사회복지학 신설”

과 정		인원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박사과정 (Ph.D.)	-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0 명	 1.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 2016년 6월 13일(월)~7월 5일(화) 전형일: 7월 6일 2. 전형방법 ① Th. M./ M. Div./ M. A.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Ph. D. - 서류전형(1차) - 영어 및 전공시험(2차) - 면접(3차) ※ 성경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 ‘성경의 문학’, ‘성경의 보건의학’, ‘성경의 경영학’, ‘성경의 건축학’, ‘성경의 역사관’, ‘존 밀톤의 실낙원에 나타난 구원관’, ‘토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에 나타난 인간이해’ 등을 연구하는 과목임. 4. 평생교육원의 특징 - ‘기독교상담연구반’은 매 학기 마다 1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평신도조직신학교사반’은 구역장 교육에 매우 좋음 - ‘목회자 주석-설교반’은 설교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됨
신학석사과정 (Th.M.)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0 명	
목회학석사과정 (M. Div.) 목회학연구과정 (M. Div. eq.)	목회자 양성 과정임	0 명	
석사과정 (M.A.)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0 명	
평생교육원	-기독교 상담연구반 - 조직신학 교사반 -목회자 주석-설교반	00 명	